

##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9. 7.(목) 06:00 ~ 23:00
- 상담건수<sup>1)</sup>: 744건

## II. 주요의견 내용

### ○ 방송 호평(3명)

-프로그램명 : 「일꾼의 탄생」 ‘경북 울진 신화 1리 마을을 가다 2부’

-방송일시 : 2023. 9. 6.(수) 1TV (19:40-20:30)

다른 프로그램은 안 보더라도 「일꾼의 탄생」은 무조건 시청하는 열혈 시청자이다.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다니며 도와준다는 콘셉트가 너무 참신하며,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제작진을 칭찬하고 싶다. 오래도록 제작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한다는 칭찬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 ○ 출연자 제언(3명)

-프로그램명 :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일시 : 2023. 9. 6.(수) 2TV (20:30-21:45)

해당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시청하는 애청자이다. 그런데 고정 패널인 정형돈 씨가 벽에 기대 채 다리를 뻗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출연자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아쉽다.

##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1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 IV. 일일 상담내용

##### 1. 상담실적 : 총 744건

######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sup>2)</sup>	계
350	28	-	-	366	744

######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59	225	17	-	3	140	744

######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11	633	-	744

######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54	2	83	105	744

시청자 의견	문 의
<p><b>【편 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광주충국]」</li> <li>- 편성 제언</li> </ul> <p><b>【시사·교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주간 기획 6시 내고향」</li> <li>- 진행자 호평</li> <li>○ 「일꾼의 탄생」</li> <li>- 방송 호평</li> </ul> <p><b>【연예·오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탑방의 문제아들」</li> <li>- 출연자 제언</li> </ul> <p><b>【라디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li> <li>- 제목 제언</li> <li>○ 「배종찬의 시사본부」</li> <li>- 방송 제언</li> <li>○ 「우리는 한가족」</li> <li>- 홈페이지 서비스 제언</li> </ul>	<p><b>【방 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주간 기획 6시 내고향」</li> <li>- ‘새우’ 연락처 문의 36건</li> <li>○ 「아침마당」</li> <li>- ‘방송 정보’ 문의 31건</li> <li>○ 「2TV 생생정보」</li> <li>- ‘해물가오리찜’ 연락처 문의 24건</li> <li>○ 「KBS 뉴스」</li> <li>- ‘보도 불만’ 8건</li> <li>○ 「한국인의 밥상」</li> <li>- ‘방송 정보’ 문의 7건</li> </ul> <p><b>【기 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시청」 문의 2건</li> </ul> <p><b>【경 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문의 34건</li> <li>○ 「프로그램 구입」 문의 21건</li> <li>○ 「전화교환」 문의 15건</li> <li>○ 「수신료」 문의 5건</li> <li>○ 「전학」 문의 3건 외 5건</li> </ul> <p><b>【기 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 문의사항 포함 105건</li> </ul>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 편 성 ]	
편성 제안	<p>○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광주충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9. 7.(목) 1TV (13:00-13:50)</li> <li>- 이 시간에는 주로 고령층 시청자들이 시청한다. 젊은층 시청자들은 일하고 있을 시간이다. 그런데 해당 방송은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 제작된 것 같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시간대 별 시청자 유형을 고려해 편성해주시기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 시사 · 교양 ]	
진행자 호평	<p>○ 「시청자주간 기획 6시 내고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9. 6.(수) 1TV (18:00-19:00)</li> <li>-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살고 있는 시청자이다. 고향 생각이 나서 해당 방송을 즐겨 시청하는데, 가애란 아나운서를 칭찬하고 싶다. 언행이 공손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가애란 아나운서가 하차하지 않고 오래도록 진행해주었으면 한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방송 호평	<p>○ 「일꾼의 탄생」 ‘경북 울진 신화 1리 마을을 가다 2부’(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9. 6.(수) 1TV (19:40-20:30)</li> <li>- 다른 프로그램은 안 보더라도 「일꾼의 탄생」은 무조건 시청하는 열혈 시청자이다.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다니며 도와준다는 콘셉트가 너무 참신하며,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제작진을 칭찬하고 싶다. 오래도록 제작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한다는 칭찬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 연 예 · 오 략 ]	
출연자 제언	<p>○ 「옥탑방의 문제아들」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9. 6.(수) 2TV (20:30-21:45)</li> <li>- 해당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시청하는 애청자이다. 그런데 고정 패널인 정형돈 씨가 벽에 기대 채 다리를 뻗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출연자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아쉽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 라 디 오 ]	
제목 제언	<p>○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9. 6.(수) 1R (07:56-07:58) (재)</li> <li>-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인데, 왜 ‘낮은 목소리’라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날은 빵집 사장님이 출연했다. 본인도 서민으로서, 평범한 서민의 목소리를 ‘낮은 목소리’로 표현한 것 같아 불편한 기분이 든다. ‘시민의 소리’ 등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많다. 고려해주시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방송 제언	<p>○ 「배종찬의 시사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9. 6.(수) 1R (12:20-13:58)</li> <li>- 공영방송은 어떤 성향의 청취자가 들었을 때도 공정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방송은 진행자와 패널 모두 한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들고, 때로는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공영방송인 만큼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주시 바란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p>홈페이지 서비스 제언</p>	<p>○ 「우리는 한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R (월-금) (18:00-19:00)</li> <li>- 본인은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 해당 방송은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으로, 늘 잘 청취하고 있다. 가끔씩 방송을 듣던 중 중요한 멘트를 놓칠 때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다시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홈페이지에서 다시듣기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